

IPEF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전망

김종덕 무역통상안보실 실장 (jongduk.kim@kiep.go.kr, Tel: 044-414-1181)

이천기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연구위원 (leek@kiep.go.kr, Tel: 044-414-1361)

예상준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jyea@kiep.go.kr, Tel: 044-414-1157)

이주관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jkleee@kiep.go.kr, Tel: 044-414-1089)

금혜윤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Tel: 044-414-1205)



차 례

1. IPEF 협상 타결의 의의
2. IPEF 협정의 주요 내용
3.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 ▶ 인도-태평양 지역 최대의 새로운 경제협정인 IPEF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협정 타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함.
 - IPEF 참여국들은 7차 공식협상과 장관회의에서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타결에 합의함.
 -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최초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정인 필라2(공급망)에 대한 서명도 이루어짐.
 - 다만 필라1(무역)의 경우 일부 챕터(특히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함.
 - 한국 전체 수출입에서 IPEF 참여국 비중은 각각 44.8%와 37.5%이며,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OFDI)의 경우 IPEF 참여국의 비중(2017~22년 평균)은 46.4%였으며, 2023년 상반기로 한정하면 약 60%에 이룸.
- ▶ IPEF 참여국들은 필라3 협정을 통해 공동의 기후목표와 탄소중립 경제를 향한 각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참여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 참여국들은 청정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협력하고 무공해 차량의 판매·생산·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며 농업·산림·수자원·해양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을 홍보함.
 - 해당 협정에 따라 IPEF 참여국들은 'IPEF 촉매 자본 기금(Catalytic Capital Fund)'을 설립하며, 2024년 상반기에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Clean Economy Investor Forum)'을 발족할 예정임.
- ▶ 필라4 협정에서 IPEF 참여국들은 참여국 전체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 및 관련 금융범죄 예방과 퇴치, 조세 행정 개선,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약속함.
 - 필라4 협정에 따라 참여국들은 새로운 역량강화 프레임워크(CBF: Capacity Building Framework)를 구축
- ▶ 필라2는 협정문 제21조에 따라 14개 참여국 중 5개국의 비준서 기탁 시 정식 발효될 예정이며, 필라1의 합의를 위한 협상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이나 그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려움.
 - 2024년에는 IPEF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가 가동될 예정으로 '핵심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IPEF 네트워크, IPEF 장관급 협의체(Council) 및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가 있음.
 -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앞으로 구성될 각종 협의체에서 한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 IPEF 협상 타결의 의의

가. IPEF 개요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무역규범 수립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경제협력과 통상협정을 포괄하는 협정임.
-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한 IPEF는 4개의 필라(Pillars), 즉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라1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필라2~4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여 협상을 추진함.
- IPEF 참여국은 미국, 한국, 일본 등 총 14개국인데 인도는 우선 필라2~4에만 참여하며 그 외 국가들은 모든 필라의 협상에 동참함.¹⁾
- IPEF는 미국법상 의회승인 절차를 생략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장 접근(market access) 약속보다는 연성법적인 협력이 강조되는 협정이라는 점이 특징적임.
- IPEF는 별도의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협정의 이행 점검을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함.

나. IPEF 협상 경과

- 미국이 협상의 마무리 시점으로 예정해왔던 11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 7차 협상 및 장관회의에서 IPEF 참여국들은 필라3과 필라4 타결에 합의함.
- 더불어 지난 5월 타결한 필라2에 서명하였으며, 다만 필라1은 이번 회의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그간 IPEF 참여국들은 일곱 차례의 공식협상을 비롯하여 특별회의, 장관회의 등을 통해 각 필라의 협상문안에 대해 논의해 왔음(표 1 참고).

1) IPEF 14개 참여국: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표 1. IPEF 협상 경과

날짜/장소		회의	내용
2022	6~9월	장관회의	공식·비공식 장관회의, 고위관계자 회의
	12.6, 12.13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세션	미국 내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2.10~15/호주	1차 공식협상	필라1 농업, 서비스 국내 규제, 통관 및 무역 원활화, 모범규제관행 챗터 논의
2023	2.8~11/인도	특별협상	5월까지 부분적 합의 달성 약속
	3.13~19/인도네시아	2차 공식협상	필라1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기술지원 챗터 논의
	5.8~15/싱가포르	3차 공식협상	필라2 논의
	5.27	장관회의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
	7.9~15/한국	4차 공식협상	필라1, 필라3, 필라4 협상 공급망 협정 관련 다음 단계 논의
	9.10~16/태국	5차 공식협상	
	10.4	장관회의	
	10.15~24/말레이시아	6차 공식협상	필라3 및 필라4 타결, 필라2 서명 필라1 협상 지속
	11.5~12/미국	7차 공식협상	
	11.13~14	장관회의	

자료: Inside U.S. Trade, Washington Trade Daily 관련 기사 참고하여 저자 정리.

다. 한국과 IPEF 참여국 간 경제관계

■ 2022년 IPEF 참여국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대비 6.8%p 증가한 44.8%이고, 다만 수입에서의 비중은 37.5%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한국의 IPEF 참여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8년 38.0%에서 2022년 44.8%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EU27에 대한 수출비중도 8.5% → 10.0%로 증가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26.8% → 22.8%로 감소함.
 - IPEF 참여국 중 한국의 수출이 가장 많은 상대국은 미국으로 2022년 수출액은 약 1,100억 달러였으며, 다음으로 베트남(610억 달러), 일본(306억 달러) 순이었음.
- 한국의 IPEF 참여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2018년 37.4%, 2022년 37.5%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19.9%에서 21.1%로 다소 증가하였고 EU27의 비중은 10.4%에서 9.3%로 감소함.
 - 한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IPEF 국가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미국이었는데 2022년 기준 약 821억 달러였고, 뒤를 이어 일본(547억 달러), 호주(449억 달러), 베트남(267억 달러)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편이었음.

■ 한국의 무역에서 최근 IPEF 참여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IPEF 국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다만, 수입에서는 2018년 대비 2022년 중국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바 한국의 생산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임.

그림 1. 한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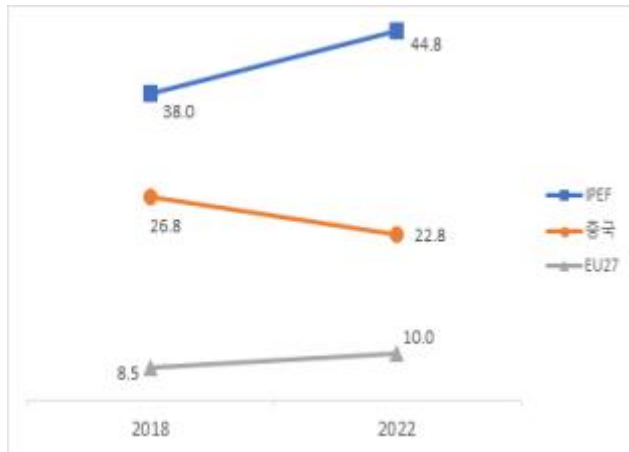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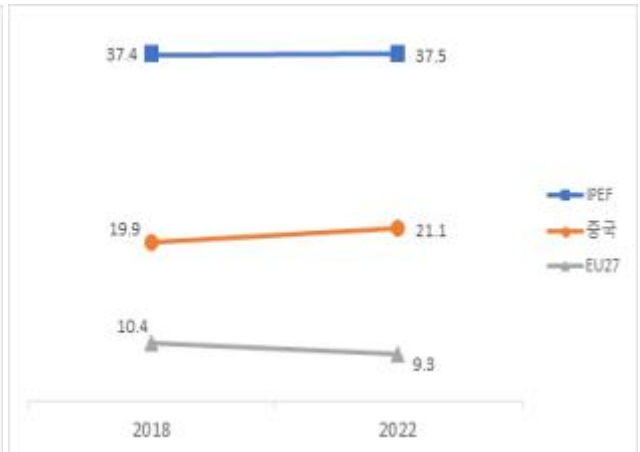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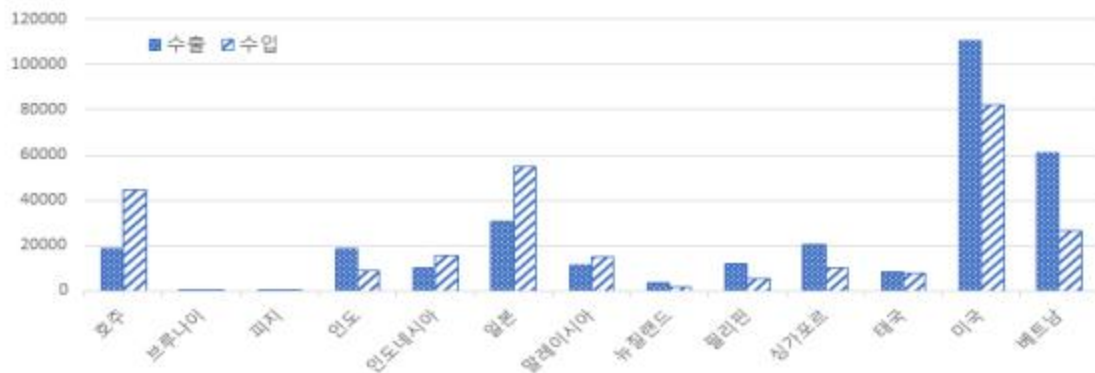


주 1)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
2) RoW의 비중: (2018) 26.7% → (2022) 22.5%.
자료: UN COMTRADE.

주 1) 한국의 대세계 수입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
2) RoW의 비중: (2018) 32.3% → (2022) 32.1%.
자료: UN COMTRADE.

그림 3. 2022년 한국과 IPEF 개별 참여국 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COMTRADE.

■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OFDI)에서 IPEF 참여국의 비중(2017~22년 평균금액 기준)은 46.4%였으며, 2023년 상반기로 한정하면 IPEF 참여국의 비중은 약 60%에 이릅니다.

- IPEF 국가에 대한 투자는 미국향의 비중이 매우 높는데, 2023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투자액이 148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46.1%를 차지함.
-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2017~22년 평균 9.1%에서 2023년 3.9%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2023년 상반기 투자금액 12억 4천만 달러 중 53.3%에 해당하는 6억 6천만 달러는 회수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IPEF 참여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IFDI)는 2017~22년 평균금액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35.2%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싱가포르, 일본이 주도하고 있음.

표 2. 한국과 IPEF 참여국 간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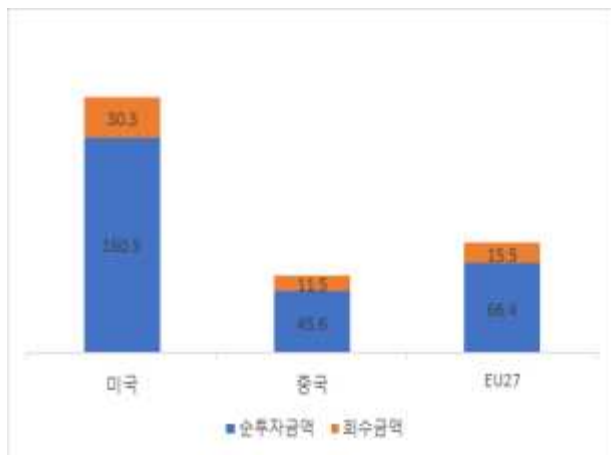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상대국	OFDI		IFDI	
	2017~22년 평균금액	2023년 Q1~Q2	2017~22년 평균금액	2023년 Q1~Q3
호주	881.8 (1.4)	268.9 (0.8)	375.7 (2.4)	41.1 (0.3)
브루나이	0.9 (0.0)	0.1 (0.0)	-	-
피지	2.6 (0.0)	1.0 (0.0)	-	-
인도	563.3 (0.9)	249.1 (0.8)	8.0 (0.1)	1.1 (0.0)
인도네시아	1,163.2 (1.8)	1,103.3 (3.4)	2.6 (0.0)	4.6 (0.0)
일본	1,246.3 (2.0)	385.6 (1.2)	1,004.2 (6.5)	755.7 (5.4)
말레이시아	384.2 (0.6)	112.2 (0.3)	56.6 (0.4)	9.6 (0.1)
뉴질랜드	2.7 (0.0)	1.3 (0.0)	7.1 (0.0)	0.8 (0.0)
필리핀	208.6 (0.3)	46.5 (0.1)	5.9 (0.0)	0.3 (0.0)
싱가포르	2,603.3 (4.1)	640.0 (2.0)	1,902.3 (12.2)	1,239.9 (8.8)
태국	129.4 (0.2)	62.5 (0.2)	5.5 (0.0)	165.1 (1.2)
미국	19,081.8 (30.2)	14,792.7 (46.1)	2,102.7 (13.5)	1,532.9 (10.9)
베트남	3,046.6 (4.8)	1,307.0 (4.1)	2.5 (0.0)	8.4 (0.1)
IPEF 합계	29,314.7 (46.4)	18,970.0 (59.1)	5,473.1 (35.2)	3,759.4 (26.7)
중국	5,713.8 (9.1)	1,243.5 (3.9)	330.4 (2.1)	240.3 (1.7)
EU27	8,188.0 (13.0)	3,378.8 (10.5)	6,454.7 (41.5)	5,362.6 (38.1)

주: OFDI는 투자금액, IFDI는 도착금액 기준이며, 괄호 안은 전체 투자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OFDI),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FDI).

그림 4. 2017~22년 평균 OFDI

(단위: 억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5. 2023년 상반기 OFDI

(단위: 억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IPEF 협정의 주요 내용

- 샌프란시스코 회의 후 IPEF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하고 각 협정에 앞으로 추진할 내용을 밝힘.²⁾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23. 11. 15), "Joint Statement From Indo-Pacific Economic For Prosperity Partner Nations."

- 참여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IPEF 장관급 협의체(Council) 및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설립을 위한 IPEF 협정(Agreement on the IPEF) 타결도 발표하였는데, 해당 협정은 전체 필라를 아우르는 (overarching) 성격을 가진다.
- 현재 필라2의 협정문(법률검토 중)만 공개된 상황이며, 필라3과 필라4의 협정문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가. 필라1(무역)

- 필라1은 ① 무역 원활화, ② 기술지원 및 경제협력, ③ 모범규제관행, ④ 서비스 국내규제, ⑤ 농업, ⑥ 노동, ⑦ 환경, ⑧ 디지털 경제, ⑨ 포용성, ⑩ 경쟁의 1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음.
- USTR은 그간 두 차례(2023년 3월, 4월) 공식협상의 논의사항 요약본을 공개하여 IPEF 협상 과정 및 내용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의회의 지적에 대응해 옴(표 3 참고).

표 3. IPEF 필라1 협상의 챕터별 논의사항 요약

공개시기	챕터	주요 내용
2023년 3월	농업	농산물 수출입업자를 위한 투명성 및 규제 확실성 제고, 식량안보에서 협력과 혁신 장려, 자국 식품공급의 안전을 위한 규제당국의 역할 강조, 농산물 무역 촉진, 농산물 수입허가절차 투명성·인증요건
	서비스 국내규제	서비스 공급업체가 IPEF 국가에서 영업허가 신청 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우받도록 보장, 금융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라이선스 신청절차 간소화
	무역 원활화	자동화에 초점, 무역 및 국경 관련 법률·규정·절차 온라인 게시, 특송 관련 절차 간소화, 전자송장 및 인보이스 프레임워크 강화
	모범규제관행	계획된 규제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면 이해관계자가 규제당국과 소통할 수 있고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 관련 정보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제 투명성 도구 마련
2023년 4월	디지털 경제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 인공지능,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
	노동	회원국의 노동법 준수 요구, 노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 추진, 공급망 내 강제노동 해결 메커니즘 추진
	환경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각종 환경 및 기후 문제 논의, 무역·투자 유치 시 국내외 환경법 준수 약속, 기후와 무역 관련 요소(자원 효율성과 순환 경제 등) 명시
	기술지원	회원국의 필라1 이행 관련 원칙 및 프레임워크 수립 제안
	포용성 (호주·뉴질랜드 제안)	IPEF 참여국은 원주민, 소수민족, 여성, 장애인, 농촌 인구 및 지역 커뮤니티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계층을 위한 지역 경제(regional economy)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과 참여 확대 필요, 포용적이고 공평한 무역·투자 환경 촉진

자료: USTR(2023. 3, 2023. 4), IPEF Pillar 1(Trade) Public Summaries 참고하여 저자 정리.

■ 현재 필라1 협상에서 진전이 어려운 분야는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로 파악됨.

- USTR은 샌프란시스코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무역 원활화, 포용성, 기술지원 및 경제협력, 농업 챗터에서의 성과를 강조함.³⁾
-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는 보호 및 규제 수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많은 분야로 판단됨.
- [노동] 바이든 행정부는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을 포함하고자 하며 이러한 의지는 11월 16일 발표된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⁴⁾
 - 해당 각서에서 미국은 강제노동, 아동노동 및 기타 학대 방지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외교, 경제적 협력, 대외 원조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 [환경] 화석연료 보조금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여타 IPEF 참여국 간 의견 차이가 여전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⁵⁾
- [디지털 경제] 국경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소스 코드(source code)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조항을 요구하는 입장과 이러한 빅테크 의제 포함을 반대하는 입장 간 갈등이 존재함.
 - 이에 USTR은 7차 공식협상을 앞두고 필라1 디지털 경제 챗터 내 일부 조항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였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10월 25일에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화 및 소스 코드 조항에 대한 기존 제안을 철회함.

나. 필라2(공급망)

■ 공급망 협정은 2023년 5월 타결되어 9월에 협정문 초안이 공개되었으며, 11월 IPEF 장관회의에서 서명이 이루어짐.

- 해당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크게 ①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②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③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음.⁶⁾
- 공급망 협정문은 4개의 절(1절: 정의, 2절: 더 강한 IPEF 공급망 구축, 3절: 예외 및 일반규정, 4절: 최종 규정)하에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협정은 공급망 문제에 대한 IPEF 참여국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망 위원회(6조),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7조), 노동권 자문기구(8조)를 설치하기로 함.

- 공급망 위원회는 참여국의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1년에 한 번 이상 개최되며,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된 우수 관행을 파악하고 공급망의 복원력·효율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함.⁷⁾

3) USTR(2023. 11. 16), "U.S. Press Statement o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Pillar I."

4) The White House(2023. 11. 16), "Fact Sheet: President Biden Takes Historic Step to Advance Worker Empowerment, Rights, and High Labor Standards Globally."

5) Inside U.S. Trade's World Trade Online(2023. 10. 20), "IPEF negotiators to head to San Francisco early as divisions remain."

6)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23. 5. 28),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

-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는 참여국의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급망 교란 상황에서 참여국 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비상연락 채널 역할을 함.
- 노동권 자문기구는 각국의 세 명의 대표(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로 구성되며, 해당 기구는 ILO와 협의하여 IPEF 공급망에서 노동권에 관한 분야별 기술보고서를 매년 최대 2회 작성함.

■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참여국은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망 교란의 영향, 원인, 예상 지속기간,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함.

- 공급망 위기 발생국의 요청 후 15일 내에 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하며, 여기서 다른 참여국의 지원책으로는 유사한 공급망 교란에 대처한 경험 공유, 민간 부문의 일시적 생산용도 변경 및 생산전환 장려, 공동 조달과 배송 촉진, 신속 통관, 영향받는 상품의 매점 억제 등이 있음.

다. 필라3(청정경제)⁸⁾

■ IPEF 참여국들은 해당 협정을 통해 공동의 기후목표와 탄소중립 경제를 향한 각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참여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 본 협정은 에너지 안보 및 전환, 기후 회복력 및 적응, 온실가스 배출 완화,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노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문제를 다루며,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함.

■ 참여국들은 청정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협력하고 무공해 차량의 판매·생산·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며 농업·산림·수자원·해양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을 홍보함.

- 청정기술을 위한 중요 광물 또는 자재 등 핵심 투입물 공급원을 확보하여 시장 전반의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비용효율적인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인위적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함.
-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 잠재적 비관세장벽 완화, 재정적 인센티브 촉진을 통해 탄소 저배출 또는 무배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확대하고자 함.

■ 청정경제 협정에 따라 IPEF 참여국들은 'IPEF 촉매 자본 기금(Catalytic Capital Fund)'을 설립하며, 2024년 상반기에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Clean Economy Investor Forum)'을 발족할 예정임.

- 민간 인프라 개발 그룹(PIDG: 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은 IPEF 촉매 자본 기금을 관리하며, 대출기관 실사(lender due diligence), 사업이행자금(viability gap funding), 기타 형태의 양허성 자본(concessional capital)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금을 동원하는 역할을 함.

7) 핵심 분야란 당사자의 국가안보, 공중보건 및 안전 또는 중대하거나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 방지에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관련된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분야이며, 주요 상품이란 가공되지 않았거나 가공 중이거나 제조된 재료, 물품 또는 제품으로 그 부재가 그 당사자의 국가안보, 공중보건 및 안전 또는 중대하거나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함(협정문 제1조).

8) IPEF 참여국의 공동성명과 미 상무부의 Fact Sheet를 참고하여 작성.

- 2023년 11월 14일 일본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IPEF 기금에 1,000만 달러를 출연할 것을 약속함.
- 첫 번째 개최되는 투자자포럼에는 IPEF 정부 측 인사들과 함께 지역 최대 투자자,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가, 첨단 프로젝트 제안자들이 모일 것이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참가 신청 절차도 곧 공개될 예정임.
- 필라3 협정은 효과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작업 프로그램(CWP: Cooperative Work Programs)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3년 5월 첫 번째 CWP로 '지역 수소 이니셔티브'가 시작됨.
- 한편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는 기후 인프라를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하는 글로벌 기후 기금(Global Climate Fund) 설립을 발표했으며, 이 기금은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smart-grid), 전력 저장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9억 달러의 사모펀드를 동원할 예정임.

라. 필라4(공정경제)⁹⁾

- IPEF 참여국들은 참여국 전체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 및 관련 금융범죄 예방과 퇴치, 조세 행정 개선,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약속함.
- 해당 협정을 통해 참여국들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처분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는 국제협약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구축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정부조달에서 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민간 부문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장려하기로 함.
- 필라4 협정에는 부패 척결과 노동법 이행 간의 연관성을 반영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즉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제공을 포함하여 노동권을 존중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고용주의 간섭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함.
- 협정에 따라 참여국들은 새로운 역량강화 프레임워크(CBF: Capacity Building Framework)를 구축하는데, 이 CBF는 협정을 뒷받침하는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제공을 위한 원칙, 방식,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협정의 필수적인 부분임.
- 참여국들은 반부패, 노동 및 세금에 관한 연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약속 이행, 이행상의 어려움, 기술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상호 정보교환 시스템을 통해 이행을 모니터링할 예정임.

3. 전망과 시사점

- [평가] IPEF는 경제협력과 통상협정을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협정 프레임워크로서 의미가 큼.
- 전통적 통상협정과 달리 관세 논의가 부재하며 대신 공급망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규범 설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모든 필라에서 노동권을 강조하고 있음.

9) IPEF 참여국의 공동성명과 미 상무부의 Fact Sheet를 참고하여 작성.

- 다양한 개도국 지원사업 및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IPEF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협정 타결 이후에는 여러 위원회를 통한 이행점검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경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 [협상 전망] 필라2 공급망 협정이 가장 먼저 발효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필라는 현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임.

- 서명을 마친 필라2는 각국이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하며, 협정문 제21조에 따라 14개 참여국 중 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정식 발효됨.
-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실질적 타결에 이른 필라3과 필라4는 협정문 공개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 절차가 후속될 예정임.
- 필라1의 합의를 위한 협상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이나 그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려움.

■ [운영 전망] 2024년에는 IPEF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가 가동될 예정임.¹⁰⁾

-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역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를 발족함.
 - 2024년에는 우선 논의 분야를 선정하고 분기별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연례 IPEF 장관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IPEF 광물 매장량 종합지도를 작성하고, 핵심 광물 채굴·제련용 화학제품·기계 등에서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광물정책 관련 전문지식 및 모범사례를 공유함.
- 이해관계자간 아이디어와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2024년에 추진할 분야로 ① 중소기업, ② 기업인, ③ 시민사회, ④ 학술·연구·혁신을 제시함.
- 더불어 IPEF 장관급 협의체(Council) 및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를 설립함.
 - 캐나다는 3월부터 IPEF 협상 참여 의사를 밝혔고 현재 참여국들도 긍정적인 입장이나 아직 실제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참여국 승인 절차를 협의하지 못했기 때문임.
 - 향후 설립될 IPEF 장관급 협의체는 4개 필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논의하고 새로운 참여국/협정의 추가 가능성을 검토함.
 - 공동위원회는 중복과 잠재적 갈등을 줄이면서 각 협정 간 또는 협정 전반에 걸친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필라2~필라4에서 협상 중인 내용을 모니터링할 예정임.

■ [시사점]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앞으로 구성될 각종 협의체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국의 IPEF 협의체 내 주도적인 입지 확보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당사국간 협력활동의 구체적인 분야·부문을 우리 내부적으로 적시에 식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
-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들도 디지털, 노동, 환경 등 모든 경제통상 이슈에서 한국의 제도나 규범이 지속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도록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적응할 필요가 있음. **KIEP**

1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23. 11. 17),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 핵심광물 등 향후 협력 합의」.